

제 1 교시

국어 영역

홀수형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잠깐 앉아요
 따뜻한 스프와 고기가 있어요
 지친 나그네여
 도시에선 절대 알 수 없는 게 있죠
 TV에선 절대 볼 수 없는 게 있죠

소문의 낙원
 누군가 비웃으면 난 더 힘내요
 소문의 낙원
 물집을 터뜨리고 붕대를 감았죠
 떠나야지만 알 수 있는 게 있죠

지치고 병든 나그네여
 우 외톨이 나그네여
 당신의 불치병은 그곳에
 존재할 수 없어요

잠깐 앉아요
 따뜻한 스프와 고기가 있어요
 소문의 낙원
 우리 모두 그곳을 찾아 떠나왔죠
 겁쟁이는 절대 모를 세상이 있죠

지치고 병든 나그네여
 우 외톨이 나그네여
 당신의 불치병은 그곳에
 존재할 수

느리게 오래 걸어가요
 우 소문의 낙원으로
 사랑을 발견하기 위해
 ㉠도시를 떠나왔어요

(나)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건
 아름다운 마음이야
 꺾어내지 말고 품어주어라
 아주 예쁜 돌이 된단다

햇빛 뒤에 ㉡그늘이 있는 건
 사랑스러운 모습이야
 밝은 미소를 짓지 않아도

-이찬혁, 「소문의 낙원」-

사랑할 이유가 많단다

너의 웃음과 조화로운 너의 눈물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
 흐린 날도 화창한 날도 시린 날도
 끼우고 나면 다 퍼즐이 될 거야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건
 아름다운 마음이야
 꺾내지 말고 마주앉아라
 찬란한 그림이 된단다

너의 웃음과 조화로운 너의 눈물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
 흐린 날도 화창한 날도 시린 날도
 끼우고 나면 다 퍼즐이 될 거야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딤어
 슬프고도 외로운 밤이
 찾아오지 않는 날
 모든 게 애뜻할 거야

너의 웃음과 조화로운 너의 눈물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건
 아름다운 마음이야

-이찬혁,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공간의 이동에 따른 화자의 심리 변화를, (나)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대상의 속성 변화를 매개로 하여 내적 갈등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② (가)는 청자에게 건네는 어조를 통해 화자가 추구하는 공간을 실체화하고, (나)는 명령적 어조를 통해 감정의 수용의 장점을 보여주고 있다.
- ③ (가)와 (나) 모두 부정적 현실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인식을 기저에 두고, 현재의 결핍을 미래의 보상적 가치로 전환함으로써 자아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의지를 드러낸다.
- ④ (가)와 (나) 모두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과의 거리감을 조절함으로써, 화자가 지향하는 관념적 세계가 지닌 배타적 속성을 정당화하고 있다.
- ⑤ (가)와 (나) 모두 수사 의문을 반복적으로 배치하여 화자의 확신을강화하고, 이를 통해 두 세계 사이의 경계가 무너진다.

2.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따뜻한 스프와 고기'는 나그네의 육체적 허기를 채워주는 기능을 함으로써, 도시에 존재하지 않는 물질적 풍요가 '소문의 낙원'의 본질적 조건임을 암시한다.
- ② 'TV에선 절대 볼 수 없는 게 있죠'는 대중적 매체에 의한 정보의 차단이 역설적으로 '소문의 낙원'이라는 공간의 신비성을 유지하는 근거가 됨을 보여준다.
- ③ '누군가 비웃으면 난 더 힘내요'는 타자의 부정적 반응을 화자의 내적 동력으로 치환함으로써, '소문의 낙원'을 향한 여정이 타자와의 단절을 전제로 성립됨을 드러낸다.
- ④ '물집을 터뜨리고 붕대를 감았죠'는 여정에서 발생한 상처에 대한 자가 치유의 과정을 제시하여, 외부의 조력 없이도 본래적 공간에 도달할 수 있는 자생적 의지를 강조한다.
- ⑤ '존재할 수 없어요'는 나그네가 겪는 '불치병'의 소멸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낙원의 절대적 속성이 나그네가 지닌 실존적 고통의 원인과 무관하게 작용함을 보여준다.

3. (나)의 '퍼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퍼즐'을 완성하기 위해 '흐린 날'과 '시린 날'이 필요하다는 것은, 부정적 정서가 기쁨의 가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수단적 배경으로 기능함을 의미한다.
- ② '끼우고 나면'이라는 표현은 감정의 조화가 선형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 경험들의 파편을 화자가 주관적으로 재구성한 결과물임을 암시한다.
- ③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라는 단정적 판단은, '퍼즐'로 형상화된 삶의 완전성이 화자의 지향과 무관하게 이미 완성되어 있다는 결정론적 인식을 드러낸다.
- ④ '조화로운 너의 눈물'은 눈물이 기쁨의 부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웃음과 대등한 층위에서 삶의 전체성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임을 역설한다.
- ⑤ '다 퍼즐이 될 거야'는 현재의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통합될 것이라는 기대를 통해, 현재의 부정적 정서를 억제하는 효과를 지닌다.

4.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가 지향하는 '사랑'의 발견이 불가능한 '결핍의 공간'이기에, 화자는 ㉠의 물리적 해체를 통해 '낙원'의 도래를 앞당기려 한다.
- ② ㉡은 '햇빛'의 존재로 인해 발생하는 부수적 현상이지만, 화자는 ㉡을 포용함으로써 감정의 이분법적 위계를 무너뜨리고자 한다.
- ③ ㉠은 'TV'로 상징되는 가공된 이미지가 지배하는 공간인 반면, ㉡은 화자가 자신의 미소를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정한 심리적 방어 기제이다.
- ④ ㉠에서 '떠나온' 행위가 '사랑'을 찾기 위한 능동적 선택이라면, ㉡을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보는 것은 대상의 본질을 변화시키려는 화자의 투쟁적 태도이다.
- ⑤ ㉠이 화자의 실존적 상처가 발현되는 사회적 공간이라면, ㉡은 그 상처가 타인에게 노출되는 것을 차단하여 화자의 본래적 자아를 보호하는 격리적 공간이다.

5.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현대인은 물리적 풍요 속에서도 존재의 근거를 잃고 표류하는 '고향 상실'의 비애를 겪는다. 여기서 '고향'이란 지리적 출생지가 아니라, 인간이 참된 평안을 누리고 효율성만 추구하는 피상적인 세계에서 벗어나 '본래적 자아'를 회복할 수 있는 실존적이고 근원적인 안식처를 뜻한다. (가)는 이처럼 '도시'로 표상되는 현대 사회에서 상실감과 소외를 겪는 존재들이, 거짓된 안온함을 버리고 고향으로 귀환하려는 실존적 여정을 보여 준다.

- ① '따뜻한 스프와 고기'를 권하며 '잠깐 앉아요'라고 제안하는 것은, 존재의 근거를 상실한 채 부유하는 현대인에게 일시적인 위안을 제공함으로써 본래적 자아로 회귀할 수 있는 실존적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겠군.
- ② '도시에선 절대 알 수 없는 게 있죠'라고 말하는 것은, '도시'가 존재의 본래성이 은폐되는 공간임을 지적함으로써 화자가 지향하는 '터전'이 지닌 가치를 강조하려는 것이겠군.
- ③ '우리 모두 그곳을 찾아 떠나왔죠'에서 화자가 자신을 포함한 '우리'를 설정한 것은, 고향 상실의 비애를 겪는 개별적 주체들을 연대하게 함으로써 '낙원'으로의 귀환이라는 공동의 실존적 기획을 수행하려는 것이겠군.
- ④ '느리게 오래 걸어요'라는 제안은, '낙원'에 도달하는 결과보다 과정 자체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도시'의 효율성 논리에 저항하고 존재의 본질을 점진적으로 복원하려는 태도로 볼 수 있겠군.
- ⑤ '사랑을 발견하기 위해 / 도시를 떠나왔어요'라고 진술한 것은, '도시'에서의 소외가 '사랑'의 결핍에서 기인한 것임을 깨닫고, 과거의 지리적 고향에서 존재했던 원초적 사랑의 형태를 찾고 현재의 삶에 그대로 이식하려는 것이겠군..

6.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고립계 내에서 전체 엔트로피(무질서도)는 항상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며, 이는 비가역적인 시간의 흐름을 상징한다. (나)에서의 '기쁨'은 에너지가 분산되며 엔트로피가 급격히 증가하는 '동적 상태'에 해당하고, '슬픔'은 계의 에너지가 수축하며 무질서도의 증가율이 둔화되는 '정적 상태'로 상정할 수 있다. 열역학적으로 볼 때, 특정 상태만이 지속되는 것은 계의 붕괴를 의미하므로, 엔트로피의 증가와 수축이 상호 보완되어 '최대 엔트로피'를 통한 통계적 평형에 도달할 때 계는 가장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한다. 작가는 이러한 평형 상태를 '아름다운 마음'으로 명명하며, 감정의 비이분법적 특징을 하나의 닫힌 계 내에서 완성되는 조화로 인식하고 있다.

- ①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것'을 '아름다운 마음'이라 한 것은, 에너지가 무한히 팽창하여 계가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엔트로피 감소의 과정인 '슬픔'이 개입하는 감정의 자정 작용을 긍정한 것이겠군.
- ② '슬픔'을 '쫓아내지 말고 품어주어라'라고 한 것은, 계 내부에서 발생하는 엔트로피 감소의 과정을 인위적으로 배제할 경우 감정의 동적 평형이 깨져 계의 불안정성이 심화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겠군.
- ③ '햇빛 뒤에 그늘이 있는 것'을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인식하는 것은, 에너지의 발산과 수축이 교차하며 계의 전체 엔트로피를 최소화함으로써 외부 에너지의 유입 없이도 감정적 자족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겠군.
- ④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건 / 아주 예쁜 돌이 된단다'라고 한 것은, 엔트로피의 증가와 감소의 교차로 인한 순환 과정을 거치며 감정이 결정화되어 견고한 내면의 질서에 도달하게 됨을 형상화한 것이겠군.
- ⑤ '슬프고도 외로운 밤이 / 찾아오지 않는 날 / 모든 게 애뜻할 거야'라고 한 것은, 감정의 수축기인 '슬픔'의 부재를 가정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슬픔'이 존재할 때만이 '기쁨'을 포함한 모든 감정의 조각들이 유기적 안정성을 가질 수 있음을 드러낸 것이겠군.